

‘황금 돼지 해’ 가 되기 바라면서



금년은 600년 만에 한번 찾아 온다는 ‘황금 돼지 해’라고 한다. 그래서 금년에 태어난 아이는 복을 많이 받고 장수를 누린다는 소문으로 부부들 사이에 아이를 낳자는 들뜬 정서가 있는 반면 오히려 많은 아이들과 경쟁을 피하여 금년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부부도 늘고 있다고 한다. 최근 황금 돼지 해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나는가 하면 민속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를 부정한다고도 한다. 600년전의 태종실록 편에라도 이와 유사한 기록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찾아 볼 수가 없으니 이는 호사가들이 ‘백 말 띠’가 어떻다느니 하는 꾸며낸 거짓말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황금 축산해 원년으로

그러나, 정감록에 설명 구절이 있으며 중국에선 이미 3~4년 전부터 황금 돼지 해와 관련하여 많은 아이탬이 등장했다는 것이 중국 관련 업계의 일반화된 얘기다. 작년은 ‘쌍춘년’이라 해서 혼사가 많았다고 한다. 혼사가 있는 만큼 경기 부양에 일조 했듯이 ‘황금 돼지 해’란 이미지 부각으로 경기 부양에 일조가 된다면 굳이 황금 돼지 해의 진위를 가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06년 3·4분기에 전체기업의 수익성은 다소 나아 졌지만 경상이익률이 0%를 밑도는 적자기업이 전체 제조업체의 3분의 1이나 된다고 한다. 또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업체의 비율은 40%에 육박해 제조업체 10곳 중 4곳은 물건을 팔아 이자도 갚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경제면 기사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확인해 주고 있다. 특히 유엔 식량 농업기구 보고서는 축산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육식과 핵무기 사용은 환경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기 때문이었다.

친환경 축산이 절실해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가 12월초 공개한 ‘축산업의 긴 그림자’란 보고서는 축산업이 기후변화 = 산림파괴 = 토지 황폐화 = 수질과 공기 오염 = 물 부족 = 생물 다양성 파괴 등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세계 육류

총 생산량은 1999~2001년 연평균 2억 2900만 톤이었지만(참고 : 2006년 세계 쇠고기 생산량 5357만 톤 <예상치>) 2050년께는 4억 6500만 톤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메탄·이산화탄소 등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는 가축의 배설물과 가축의 트림을 통해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 가스의 양보다 많다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육지의 26%가 목초지이고 세계 곡물 생산의 3분의 1은 사료용으로 쓰인다고 하며 가축을 키울수록 산림 벌채는 늘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는 그 해결책으로 가축의 온실가스 방출을 막기 위한 사료 제조의 개선 방안, 퇴비 관리 시스템 개선으로 토양 보존을 위한 토양보전법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해 축산인은 물론 나라 전체가 비상이었다. AI는 닭이나 오리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돼지와 사람에게도 감염시키기 위해 바이러스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1931년 인플루엔자에 걸린 돼지를 조사하다 바이러스가 원인이라 게 밝혀졌고 2년 뒤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필사적인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병이 있으면 약이 있다

반 병의 위스키를 보고 “이제 반 병 밖에 안 남았어...”하는 사람과 “아직도 반 병이나 남았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느 사물 하나를 놓고 보는 사람에 따라 매우 상반된 의견이 있음을 실감케 하는 일화다. 한 사람은 반 병 남은 위스키가 아쉽고 안타까워하는 실망의 목소리고 한 사람은 아직도 넉넉하고 대견하다는 희망과 기쁨을 담은 목소리다. 아무리 청명한 날씨라도 덜 마른 내복을 입고 있다면 장마에 젖은 옷을 입고 있음이요 장마 중이라도 잘 마른 내복을 입고 있으면 청명한 날씨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지난해는 한미 FTA와 관련 농·축산업계의 수 많은 데모가 있었다. 끝내는 국내외 관계없이 협상 장소를 찾아 때론 극렬한 반대 시위를 했다. 금년 12월 중 타결은 내년 2월로 변경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와중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특히 양계인들의 가슴을 메어지게 했다. 금년이 600년 만에 찾아온 ‘황금 돼지 해’란 데 착안하여 치킨 전문 외식 브랜드 모 업체는 고객 이벤트에 당선된 10명에게 80만원 상당의 황금 돼지 한 냥을 2등 100명에게는 8만원 상당의 황금돼지 한 돈을 선물한다고 한다. 매우 기발한 착상이 아닐 수 없다. 병이 있으면 약이 있게 마련이다. 약을 찾으면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진위를 떠나서 금년은 명실상부한 ‘황금 돼지 해’가 되어 축산·사료 분야의 호뭇한 한 해가 되길 바라는 염원을 우리 모두가 기원해보자.

2007년 1월 1일

발행인 겸 편집인 俞 東 濬

韓國單味飼料協會 會長